

예교진병일록 曳橋進兵日錄

해제 및 역주 ; 趙浚來(순천대학교 명예교수)

「예교진병일록」은 1598년 정유재란 중전기에 순천 왜교성과 광양만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기록을 가리킨다. ‘예교’란 왜교(倭橋)의 별칭이자 비칭(卑稱)이다. 이 기록은 의병장 임환(林權)의 참모장이었던 진경문(陳景文 1561~1642)이 왜교성 전투에 참전하여 당시의 전투상황을 생생하게 기술한 진중일록이다. 이것은 진경문의 시문집인 『섬호집(剡湖集)』 하권에 수록되어 전한다.

진경문의 본관은 여양(驪陽), 호는 섬호(剡湖)이니 나주 출신이다. 그의 호는 그가 살았던(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곳의 지명, 섬포(剡浦)나루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1561년(명종 16) 나주목의 선비 진정수(陳井壽)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문장이 탁월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1589년(선조 22년) 생원시에 합격한 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지들을 규합하여 김천일 휘하의 의병항쟁에 뛰어들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동향의 소의장(昭義將; 의병장의 군호) 임환의 참모장으로 종군하여 도내 각지에서 의병항전을 펼치던 중 1598년 9월에 낙안을 거쳐 순천 왜교성에 진군하였다.

『섬호집』은 진경문의 사후 7년만인 1648년, 아들 진만귀(陳晩貴)가 부친의 유고를 정리하여 상·하 2권 2책으로 간행한 목판본이다. 본서의 내용은 진경문이 지은 시문 500여 수, 기사(記事) 42편, 그 밖에 제문, 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교진병일록」은 하권 말미에 실려 있다.

왜교성 전투는 1598년 9월 20일부터 11월 19일의 관음포 해전(노량해전)이 있기까지 약 2개월간에 걸친 정유재란 최후의 결전이었다. 조·명·일 3국의 육해상군이 현재의 여수반도와 광양만 해역에서 수륙합동작전으로 펼쳐진 이 전투야 말로 임란 7년전쟁 막바지에 불붙은 최대의 격전이기도 했다. 이 전투는 1,2차 두 단계에 걸쳐서 전개되었다. 1차 전투는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순천 해룡과 광양만 바다에서 17일 동안 수륙연합작전으로 전개되었고, 2차 전투는 11월에 이르러 일본군이 왜교성 철수작전을 감행하면서 재개되었다. 육상에는 일본군이 빠져나갈 통로가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그들이 택해야 할 탈주로는 광양만 해로 뿐이었다. 따라서 11월 11일 묘도에 진을 친 조명연합수군과 왜교성의 소서행장군 사이에 또 한 차례의 광양만 해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11일부터 묘도·장도 해역에서 벌어진

전투가 19일 새벽녘 관음포 앞바다에서의 최후 격전까지 9일간의 해상전투, 이것이 곧 왜교성 공방에서 이어진 광양만 해전의 2단계 싸움이었다.

『예교진병일록』에는 9월 20일부터 육해상에서 벌어진 제1차 전투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다. 10월 7일 조명연합의 육상군이 왜교성에서 부유(현 순천시 주암면)로 퇴군할 당시 진경문이 소속한 의병부대 역시 함께 물러갔던 관계로 11월의 제2차 전투기록은 남기지 못하였다. 대체로 왜교성 밑(광양만) 해상전투로 이루어진 제2차 전투에 대하여는 『선조실록』과 이순신의 『난중일기』, 조경남의 『난중잡록』 등을 통하여 대체적인 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예교진병일록』에는 다른 어떤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왜교성 전투의 역사적 진실이 많이 담겨 있다. 종래에는 이 전투가 마치 왜교성의 육지에서만 이루어진 공방전인 것처럼 인식해 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육상의 왜교성 공방과 광양만의 해상전투가 함께 펼쳐진 전투였음을 소상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예교진병일록』이다. 이 기록을 분석해 보았을 때 육전 보다는 해상전투가 더욱 치열했을 뿐 아니라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어 전세를 좌우한 것도 해상공격이었다. 따라서 왜교성 전투는 ‘왜교성 공방과 광양만 해전’으로 지칭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좀더 가까울 것이다.

참고문헌

- 송하진, 「진경문의 剡湖集」, 『금호문화』11, 금호문화재단, 1991.
진경문, 『剡湖集』(한국역대문집총서 527), 경인문화사, 1993.
조원래, 「정유재란과 順天倭城論 재검토」, 『문화사학』 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 「참전기록을 통해 본 왜교성 전투의 실상」(『정유재란과 왜교성 전투』, 이충무공유적보존회), 2014.
———, 『남도의 백성이 지킨 나라』, 순천대 박물관, 2016.
-

[번역문]

예교진병일록

정유년 가을에 왜적이 호남을 대대적으로 침략하였을 때 소서행장은 순천부의 남쪽 예교(曳橋)¹⁾에 웅거하고 있었다. 소위 예교라고 하는 곳은 산세가 우뚝 솟아 있어 그 형상이 마치 호랑이가 엮드려 있는 것과 같았다.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일면이 육지와 이어져 순천부에서 좌수영으로 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광양과 인접하여 갯밭이 경계가 되고, 남쪽으로는 남해도로 열린 바다와 접해 있는데, 장도가 바로 앞 2리 쯤에 있다. 서쪽으로는 호두²⁾와 1리 남짓 떨어져 있으며, 가운데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다. 석점³⁾이 북쪽으로 10리 밖에 있는데 해농창 들판에 접해 있다.

소서행장은 왜교 위에 널따란 마당을 만들고 흙을 돋아 성을 쌓고서 수천 군사를 수용하였다. 5층 망루를 지어 백토를 칠하고 기와를 덮었으니 그 모양이 마치 나르는 새의 날개 같았다. 옆으로는 흙으로 만든 창고들이 줄지어 있어 무기와 군량을 저장하였다. 외곽에는 견고한 성을 한 겹 더 쌓았고, 그 북쪽의 연륙처에 해자를 넓게 파놓고 동서로 바다에 접하게 하여 배를 끌어들여 출입하였다. 그 바깥에 또 한 줄기 외성을 쌓아 동서로 바다에 접하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문루(門樓)를 세우고 흙으로 지붕을 덮어서 사면을 그을렸다. 성바깥 주위에는 목책을 2중으로 둘러치고 그 북쪽 일면에는 한 겹을 더 가설하였으며, 성위에는 성첩을 쌓고 포혈(砲穴)을 내었는데 마치 벌집과도 같았다. 내성으로부터 외성에 이르기까지 흙집들이 즐비하여 수천여 첩에 이르렀고, 성 아래 동쪽에는 선창이 있었으니 바로 적선이 정박하는 곳이다. 소서행장과 여러 왜장 사기영도노·알이마도노·아란도노·고물안도노·고돈도노·피란도노 등이⁴⁾ 모두 그 성 안에 있었다.

1)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산 1번지에 위치한다. 1963년 국가지정 사적 제 49호 '승주 신성리성'으로 지정되었다가 1999년 2월 26일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 171호 '순천 왜성'으로 변경, 재지정되었다. 왜교·왜교성·예교성·왜성·왜성대·망해대·순천성·신성리성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운다. 이곳은 처음에 육지와 먼 한 서쪽에 넓이 5칸, 깊이 1칸 반의 해자를 파서 육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고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는 개폐식의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橋자를 붙여서 조선에서는 주로 왜교, 명에서는 흔히 예교라 불렀던 것이다. 광해군 때 순천부사 이수광이 '망해대'로 고쳐 부르기도 하였다. 이후 본문에서는 모두 왜교 또는 왜교성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2) 현재의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3) 순천시 해룡면 大安里에 있는 지명. 돌이 많은 고개라 하여 현지에서는 '돌고개'라고도 불렀다.

4) 정유년 왜교성에는 처음부터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포함하여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鎮信)·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오무라 요시아키(大村喜前)·고토 스미하루(五島純女) 등 소위 大名級 5장이 주둔하고 있었

무술년(1598) 9월, 제독 유정이 대군을 거느리고 내려와 남원과 곡성 사이에 주둔하였다. 이때 형군문(邢軍門)⁵⁾은 네 도독을 분담시켜 진격하게 하였는데 모두 이달 20일 아침 8시 경에 출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도독 마귀(麻貴)⁶⁾는 울산성을 주관하고, 도독 동일원(董一元)⁷⁾은 사천성을 주관하고, 제독 유정은 왜교성을 주관하고, 도독 진린은 수군을 관장하여 협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유제독은 우리나라 군사들에게도 출병을 재촉하며, 홍마패(紅馬牌)를 찍어 나누어 주고서 “조선군은 뒤따라 출정하라!” 하였다.

그 달 14일 (유제독은)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본국의 병졸들에 이르기까지 부서를 편성하고 삼로(三路)로 나누어 진격하게 하였다. 선두 진영에는 유격장 왕지한을 배정하고, 제2영에는 유격장 사무관(司懋官)과 참장 이녕(李寧)⁸⁾ 및 충청병사 이시언(李時言)으로 하여금 광양 좌로를 경유하여 진격케 하였다. 광영(廣營)⁹⁾의 부총병 오광과 방어사 원신(元愼)·소의장(昭義將) 임환¹⁰⁾은 낙안 우로를 거쳐서 해농창을 가로질러 진격케 하였다. 제독 자신은 부총병 이방춘과 유격장 우백영·도원수 권율·전라병사 이광약 등을 인솔하여 부유창(富有倉)¹¹⁾의 대로를 경유하여 직진하기로 하고, 15일을 기하여 일제히 행군하여 20일 아침 8시 쯤에 모두 함께 공격하기로 하였다.

19일 유제독은 부유창을 출발하여 저녁에 월등촌에 도착해서 부총병 조희빈(曹希彬)¹²⁾의 진중에서 숙영하였다. 새벽 두 시경에 군사를 출발시켜 먼동이 틀 무렵 바

-
- 다. 그 후 1598년에 우쓰노미야 구니쓰나(宇都宮國綱)가 함세하여 왜교성 전투에 참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알이마 도노와 고돈 도노는 아리마 하루노부와 고토 스미하루를 가리킨 것으로 지적되나 나머지 장수들은 확인할 수가 없다. 장수들의 묘지(성씨) 다음에 붙은 도노(鳥老)란 어휘는 존칭을 나타내는 ‘公’을 의미한다. 위의 여섯 장수 외에도 왜교성 전투시에는 미나미조(南條元清)·오야마(小山主馬助)·고쿠라(小倉左助)·나가오카(長岡軍三郎)·스즈키(鈴木伊之助)·다카오(高尾石見)·고노(小野塚意) 등 약 30여 명의 소서행장 휘하 장수들 명단이 전하고 있다(『日本戰史 朝鮮役』(참모본부, 1924)「補傳」제180 宇都宮國綱順天の殿戰).
- 5) 군문이란 명의 總督이나 巡撫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정유재란시 邢玠가 지휘했던 총독군문을 말한다. 당시 형개의 공식적인 직함은 ‘總督薊遼保定等處軍務兼理糧餉經略禦倭兵部尚書兼都察院右副都御史’이었다.
 - 6) 산서성 大同府 출신으로 대대로 무장을 배출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부친 麻祿의 뒤를 이어 일찍부터 참장·유격장 등의 무직으로 선부 대동지역의 군대를 지휘한 후 1592년 영하의 난(발백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어 송 휘하의 총병관으로 난을 토벌하였다. 정유년 7월 提督南北官兵禦倭總兵官으로 조선에 파병된 후 그 해 9월 휘하의 부총병 解生으로 하여금 직산전투에서 黑田長政軍을 격파하였다. 이듬해 9월 조명연합군의 사로병진작전이 전개되었을 때엔 동로군 제독으로서 울산성 전투를 총지휘하였다.
 - 7) 하북성 宣府 출신의 무장이다. 정유재란 당시 어왜총병관(禦倭總兵官)으로서 조명연합군의 사로병진작전 때 동로군을 지휘하여 사천성을 공격하였다. 1598년 10월 도진의홍(烏津義弘) 휘하의 사천 신성을 공격하던 중 유격장 팽신고(彭信古)진영에서 화약이 폭발하는 바람에 일본군의 급습을 받고 대패하였다. 이로 인해 일시 관직이 강등되었으나 뒤에 군공을 세워 관급을 회복하였다.
 - 8) 이 전투에 참전한 장수가 아닌데 착오인 것 같다. 그는 동일원 제독 휘하의 사천성 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한 인물이다.
 - 9) 중국 양자강 이남의 兩廣(광둥·광서) 지역의 방어를 맡았던 군영. 여기에서는 광동군 군영을 말한다.
 - 10) 임환(1561~1608) : 백호 임제(林梯)의 아우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리 나누에서 의병을 일으켜 창의사 김친일의 중사관으로 활약하였다. 정유재란 때는 명량해전을 전후하여 이순신에게 군량 수백석을 지원한 후 다시 의병을 일으켜 昭義將이란 군호를 내걸고 전라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의병항전을 펼쳤다. 1598년 조명연합군의 4로병진작전이 전개되자 도원수 권율과 함께 西路의 왜교성 전투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 11) 순천부 주암면에 있었던 官倉 소재지. 현 주암면 창촌리에 위치하여 순천부의 환곡 등을 보관하였으며 富倉이라고도 불렸다.
 - 12) 원문에 晝時聘이라 하였는데, 이는 부총병 曹希彬을 잘못 쓴 것이다.

로 순천부 읍성에 당도하여 성밖에 주둔하니, 그곳에서 왜교는 15리 가량 떨어진 거리였다. 사람을 시켜서 소서행장으로 하여금 서로 만나서 강화회담을 갖기로 약속하고, 비밀리에 기패관(旗牌官)¹³⁾ 왕문헌(王文憲)¹⁴⁾을 제독이라 칭하게 하고, 또 본국의 백한남과 변홍달을 배신(陪臣)으로 칭하게 하여 거짓 계략을 쓰고자 했다.

그때 부총병 오광은 낙안 개령촌에서 출발하여 아리점(阿里帖)에 이르러 날이 밝자 군사들을 주위 산골짜기에 모두 숨겼다. 해뜰 무렵 부총병과 방어사·소의장 등이 산위에 올라가 적진을 바라보니, 적병들이 돌고개 동쪽 봉우리에 올라 조총을 몇 발 쏘고나서 뿔나무를 태워 연기를 피우고 있었다. 해가 뜨자 말을 탄 기병들, 혹은 도보로 행군하는 왜병들의 행렬이 깃발을 펴리면서 20리에 걸쳐 죽 이어지고 있었다. 또 흩어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흥기와 백기를 늘어 세우고 군대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부총병 오광이 이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는 필시 소서행장이 유제독과의 회약(會約)을 위해 순천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만약 우리 군사들을 발견하게 되면 대계(大計)를 그르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들을 숨겨 움직이지 말게 하고, 모름지기 제독이 교전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출발을 서둘러 함께 진격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소의장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곳은 적진으로부터 20리 가량이 떨어져 있고, 또한 해농창의 들길이 진창인 데다가 곳곳이 패여 있어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까운 길목에 복병을 설치해서 적을 기다린다면 격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부총병이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따르지 않자 소의장 등이 각기 정예병 일대(一隊)를 뽑아서 복병을 설치하려 했을 때였다. 갑자기 적의 대포 쏘는 소리가 들리면서 변보(變報)가 생겼으니, 이는 곧 광양분로병(光陽分路兵)이 먼저 적진을 공격한 것이었다.¹⁵⁾ 그때 소서행장은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준비하여 해농창 들에 이르렀다가 명의 군사들을 발견하고서 말을 돌려 왜교성으로 달려 돌아가 버렸다. 제독이 즉시 군사들을 재촉하여 그 뒤를 추격하니, 부총병 오광 또한 이를 바라보고 있다가 해농창 들을 곧장 가로질러 진격하면서 삼로의 군사들이 일시에 모두 추격하였다. 적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를 흔들고 칼을 휘두르며 우리 군사들에게 시위하였다. 우리 군사들이 공세를 틈타 돌고개까지 추격하여 압박하니 적은 기치를 말고 퇴각하여 왜교 진지로 들어갔다. 광양분로병이 먼저 적진 앞에까지 접근하였으며 오광의 광동군도 뒤이어 당도하였다. 왕유격이 왜적 15급을 베었고, 제독 진영의 기패관 조백(曹栢)이 4급을 베었으며, 그밖에 나머지 여러 장수들이 획득한 적의 수급(首級)이 모두 아울러 90여 급이었다. 삼로의 명군이 적진 가까이 진격하여 팽팽

13) 병졸 중에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軍旗에 관한 일을 맡은 무관직이다.

14) 원문에 王世賢이라 하였는데, 王文憲의 오키로 보인다. 우의정 이덕형이 순천에서 9월 26일 조정에 보낸 장계에 왕문헌으로 나타나 있다(『선조실록』 권103, 31년 9월 무신).

15) 광양분로병이란, 유정의 육상연합군이 왜교성을 공격할 당시 순천(중로)·광양(좌로)·낙안(우로)의 3로를 통하여 진군하였는데, 좌로 즉 광양방면에서 왜교성을 향해 진격한 군사를 가리킨다. 이 때 광양분로병은 현재의 광양 세풍방면에서 순천 해룡면 성산리 방면으로 진군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서행장이 강화회담을 위해 이미 왜교성을 나와 약속된 회담 장소(왜교성에서 순천부 읍내로 통하는 길목의 한 찻집)로 이동하던 중에 광양분로군의 적후병들과 조우한 것으로 추측된다.

히 버티자 적의 무리들이 감히 나오지를 못하고 오로지 성문의 포혈(砲穴)을 통해서 대포만 쏘아댈 뿐이었다.

정오 무렵 진도독이 통제사와 함께 조수를 타고 해상으로 진격해 오니, 수군이 성대하게 진격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명의 육군이 뿔뿔이 기뻐하며 사기가 배나 더하였다. 진도독이 이끄는 연합수군이 장도(獐島)를 습격하여 적의 군량 300여석과 우마를 탈취하고 조선 피로인(被擄人) 3백여 명을 구출하였다. 그리고 군사를 나누어 또 삼일포의 왜적 소굴을 소탕하고서 장도 앞바다에 전함을 줄지어 세우고 백기를 모두 내걸었다. 이 때 유제독은 적진 바깥 1리 쯤까지 대군을 늘어세우고 기고(旗鼓)를 성대하게 펼쳐서 바둑판처럼 넓게 진을 쳤다. 또 목죽(木竹)을 거둬 들여서 공성기기(攻城器機)를 대거 제작하였다. 이날 밤 적은 뿔나무에 불을 붙인 횃불을 만들어 성위에서 성밖으로 내던지니 그 불빛이 대낮같이 밝았는데, 날이 쌀 때까지 대포를 쏘아댔다.

다음 날 21일. 제독은 군사들을 성밖에 줄지어 세워서 대치하였고, 수군은 이른 아침의 조수를 타고 적진의 성동쪽 모퉁이까지 진격하여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니, 적이 전선을 타고 노를 재촉해 저으며 유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군이 중요하지 않음으로 적이 감히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더니 조수가 밀려나자 수군이 곧 퇴각하였다. 저녁 6시 경에 적이 서문으로 나와, 한두 명 혹은 서너 명씩 무리를 지어 드나들며 칼을 휘두르고 조총을 쏘아댔다. 명군의 한 병사가 백마를 타고 돌진하여 적기 하나를 빼앗으니 적도들이 성안으로 달려 들어가며 총알을 집중적으로 쏘아댔다. 총알이 그 말의 다리에 맞았으나 말은 넘어지지 않았으므로 제독이 그 병사에게 은패를 상으로 주었다. 이날 북풍이 잠시 일고 하늘빛이 맑았는데 깃발이 모두 적진을 향해 나부끼니, 하늘이 우리를 도울 뜻이 있는 듯하였다. 이날 밤 적이 횃불을 붙이고 총쏘기를 전날 밤과 같이 하였다.

다음 날 22일. 오전 10시 경에 진도독이 수군을 거느리고 조류를 따라 또 진격하였다. 적이 무리를 지어 나와서 선창에 몰려드니 수군 전선들이 돛을 펼치고 노를 재촉하여 번갈아 돌아들면서 치열하게 싸웠다. 피아간에 격렬하게 총을 쏘아대니 마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명의 전선 한 척이 바깥 붙어서 진격하니 적병 100여 명이 얇은 바다를 급히 건너와 맞붙어 싸웠다. 명군이 그들을 쇠갈고리로 낚아 채서 10 여급을 베었으니, 이때 적들의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명 수군의 희생자들 또한 적지 않았는데 유격장 계금(季金)이 탄환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그때 우리나라 수군은 조수가 알아져 함께 따라서 싸울 수가 없었다. 오후에 유제독이 징을 울려 군사들을 철수시켰는데, 우리나라의 피로인 두 여인이 적진에서 도망쳐 나와 도원수에게 고하기를 “적의 무리가 매우 많은 것은 아니며, 명군을 두려워하여 겁을 내고 있는 데다가 군량도 부족하여 넉넉히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날 밤 적진에서는 횃불을 울리지 않고 소리없이 적막한 가운데 다만 때때로 화포만 쏘았다.

다음 날 23일. 소의장 진중의 선비 정민준 등이 술과 여러 가지 안주를 마련하여

제독부에 올리니, 제독이 막 걸상에 걸터 앉아서 가정(家丁)을 시켜 발을 씻고 있었다. 역관 이억례가 보고단자(報告單子)를 올리니 제독은 씻는 일을 바로 멈추고 일어서서 들어오도록 예를 취했다. 오전 10시 경에 제독이 1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왜교성 서쪽 언덕에 올라가 적진을 바라보며 크게 소리내어 휘파람을 부니, 따르던 군사들이 모두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각 진영에서는 목책을 늘어세우고 진지를 구축하여 지구전에 대처할 뜻을 보였다. 제독은 조선의 군사들을 시켜 운제(雲梯)¹⁶와 충거(衝車)¹⁷ 및 각종 공성기구들을 다량 제작하도록 독촉하고, 많은 복병을 설치하여 순찰을 엄중히 하게 했다. 그날 저녁에 적병 30 여명이 성 밖에 나와 총을 쏘며 횡행하니 사수를 뽑아서 적진의 언덕을 향해 화살로 응징하였다. 태인현감 문희성이 왜병 한 명을 쏘아 맞추니 제독이 은패 두 장을 상으로 주었다. 수군은 하현(下弦) 때인지라 수심이 얕았기 때문에 진격을 할 수가 없었다. 이날 밤 적은 날이 밝기까지 밤새도록 화포와 조총을 무수히 난발하였다.

다음 날 24일. 적이 성 밖에 나와 엉덩이를 두드리며 날뛰자 명병 한 명과 조선군 포졸 고·남·김 아무개가 각기 적병 한 명씩을 싸맞춰 땅바닥에 쓰러뜨리니 적이 그 시체들을 끌고 진지로 들어가 감히 다시 나오지 않았다. 저녁에 적이 배를 타고 나와 밤새도록 횡행하였으나 수군을 두려워하여 감히 넓은 바다로 나오지는 못하고 그들 진영으로 되돌아 갔다. 밤중에 명군 감영(贛營)¹⁸의 유격장 부량교(傅良喬)의 군사 2천명이 명군 진영에 이르러 합류하였다. 이날 밤 명군이 군사를 때복시켰다가 적진을 향해 화전(火箭)을 무수히 퍼부으니, 적들은 소리를 치고 고향을 지르며 밤새도록 계엄하였다.

다음 날 25일. 적이 성 밖에 나와 횡행하므로 조명연합군이 활을 쏘기도 하고 포를 쏘기도 하였으나 다 맞추지는 못하였다. 적은 공공연히 땀나무를 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밤도 적진에서는 횃불을 밝히고서 삼엄하게 경계하기를 전날 밤과 다름이 없었다.

다음 날 26일. 백여우가 성중의 적진에서 나와 제독의 진영 앞에까지 왔다가 달아나니 많은 군졸들이 뒤쫓았으나 잡지를 못하였다. 두치(頭峙)¹⁹의 복병을 철수시켰다. 여기에 복병을 설치한 것은 사천(泗川)의 적²⁰이 쳐들어 올 것을 의심해서 이었는데 동일원 도독이 이미 그곳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수해 돌아오게 하였으니, 그 군사는 곧 절서병(浙西兵)²¹이었다. 적병 백여 명이 진지 밖으로 나와 거리낌 없이 조총을 쏘면서 우리 매복군과 전투를 벌리려 하자 명군의 병졸 한 명이 거짓으로 총알에 맞은 척하고 쓰러졌다. 적은 그가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곧바로 달려와서 치려 하였다. 그 때 명병이 갑자기 일어나 삼지창으로

16) 공성장비의 하나로서 성벽에 오를 때 반드시 필요했던 높은 사다리.

17) 적의 성문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공격용 수레.

18) 중국 江西省 출신의 군사들로 구성된 부대를 가리킨다. ‘감’ (贛)은 강서성의 상징인 贛江에서 따온 것이다.

19) 섬진강 하구의 豆峙津을 말한다. 조선시대 군사적으로 중요한 나루가 있었던 곳으로 당시엔 광양현의 관할이었으나 현재는 행정구역상 경남 하동군 하동을 豆谷里이다.

20) 사천왜성(선진리성 또는 사천신성)에 주둔해 있던 島津義弘의 군사를 말한다.

21) 중국 浙江省 서부지역의 방위를 맡고 있던 군대였으므로 그렇게 부른다.

적의 가슴을 꿰뚫고서 그 칼을 빼앗아 적병을 베어 버렸다. 제독이 그 병졸에게 온전 150냥과 비단옷 두 벌, 말 한 필을 상으로 주고서 곧 바로 파총(把摠)으로 승진시켰다. 초저녁에 제독이 육상군 여러 부대를 독려하여 각기 병장기 두 자루씩을 들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함성을 지르게 하니 그 형세가 극히 장대하였다. 이날 밤에도 적의 움직임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는데, 이 때 각 부대의 공성기기가 이미 절반은 완성되었으므로 제독이 28일을 수륙합동의 공격일로 약정하였다.

다음 날 27일. 비가 조금 내리다가 곧 맑게 개었다. 이른 아침에 도원수와 접반사²²⁾가 두 개의 백기를 만들어 양면에 크게 써서 이르기를 “포로가 되어 부역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죽음을 면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 깃대를 적진 밖에 세워두었다. 왜적이 이 두 기를 즉시 뽑아서 그들의 진영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날 정오 무렵에 왜적이 큰 종이에 쓴 글을 장대 끝에 걸어서 적진 밖에 세웠다. 명군의 병사가 그것을 가져와 제독부에 바치므로 열어본 즉 소서행장 휘하의 부장 우근(右近)²³⁾이 제독부의 부하가 된 항왜(降倭) 섭춘(葉春)에게 부친 글이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나는 일찍이 가등청정 휘하에 있었으나 사정이 있어서 소서행장의 진중에 투입되어 있다. 지금 들으니 너 또한 가등청정의 진중에서 제독부에 내부(來附)하여 그 밑에 있다고 하는데, 이후에 만일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모름지기 나에게 통지하라.” 라고 하였다. 왜적이 또 글을 써서 장대 위에 매달아 진 밖에 세워두었다. 명병이 또 이를 취하여 제독부에 올려 열어본 즉, 역시 가등청정 진중의 왜병으로서 소서행장의 진중에 와있던 자였다. 그가 섭춘에게 보낸 글에서 이르기를 “헤어진 후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지금 비로소 네가 거기에 있다고 들으니 매우 위로가 된다. 네가 만약 고향에 편지를 부치고자 한다면 내가 마땅히 전하여 주겠다.”라고 했다. 뒤이어서 한 왜병이 우근의 서신과 흥기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섭춘에게 전달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내일 네가 이 기를 가지고서 군사 3,4 명만 거느리고 나온다면 나 역시 3,4 명만을 데리고 나가 서로 만나서 일을 의논하자.” 라고 하였다.

제독이 섭춘에게 답장을 쓰게 하였는데, 그 대략에 “청정은 이미 동로(東路)의 명장과 더불어 화약(和約)을 마쳤다고 하며, 유제독은 행장의 산성을 공파(攻破)한 연후에 즉시 철병하여 바다를 건너가겠다고 한다. 내가 들은 바가 이와 같기 때문에 너에게 알려 준다.”고 하였다. 그날 제독은 여러 장수들과 수백의 기병을 이끌고 호두에서 적진의 형세를 관망하였다. 도원수가 각 진영에 나누어 정해진 공석(工石)과 신초(薪草)를 독려하여 거둬들이니 산더미 같이 쌓였다. 이것은 왜교성을 공격할 때 쓸 것들이었으니 우리 군사들이 이를 준비하는 일에 매우 고통스러워 하였다. 제독은 다음 날 왜교성을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공성기계가 완비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22) 명의 제독 유정의 업무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를 접대하는 임무를 맡았던 接伴使를 이르는데, 당시 호조판서 金陞가 그 직책을 맡고 있었다.

23) 소서행장과 친분이 있었던 인물로 다카야마 우근(高山右近, 1552~1615)이 있었지만 그는 정유재란중 소서행장과 함께 하지 않았다. 카톨릭 교회의 복자였던 그는 소서행장이 카톨릭 신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었다. 왜교성 전투 당시 소서행장 측근에 있었던 젊은 부장으로서의 우도궁, 즉 宇都宮國綱(우쓰노미야 구니쓰나, 1568~1608)를 가리킨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다음 달 초 2일로 연기하였다. 이날 밤 8시께 적진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소란을 일으켰다가 한참 뒤에야 그쳤다.

다음 날 28일. 부총병 오광이 그의 군사 6명의 귀를 꺾어서 여러 진영에 다돌려 보였다. 이는 부총병이 밤에 복병을 뽑아 보내고서 자신이 직접 순검을 하였는데, 그때 누워서 잠자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벌을 내렸던 것이다. 도원수는 조선군 제진(諸陣)의 사수록(射手錄)²⁴⁾을 독찰하여 거둬들였는데, 제독부에서 이를 독촉하였기 때문이다. 왜적들은 성 위에 포대를 쌓았고, 제독은 친히 군단(軍壇)에 제사를 지냈으며 군사들에게는 화포 연습을 시켰다. 이날 밤 적진의 형세는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다.

다음 날 29일. 제독이 명군의 제진영 및 본국의 군사들에게 명하기를 “수륙합동 공격시에 충청병사는 왕 유격군에 소속하여 동쪽 수문으로 들어가고, 전라병사는 오 부총군에 소속하여 왜교성의 중심부를 공격하며, 방어사와 소의장은 부 유격군에 소속하여 서쪽 수문을 집중 공격하라.”고 하였다. 그날 제독은 자신의 가정(家丁)들을 거느리고 걸어 나와서 공성기계를 검열하였다. 그때 소서행장은 유제독과 더불어 강화를 하고자 하니, 왜승장 아란도노가 말하기를 “싸우다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니, 제가 친히 군기를 펼쳐두고 전비(戰備)를 더욱 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²⁵⁾라고 하였다. 이날 밤 적은 화포와 조총 수백정을 어지럽게 쏘대며 경계하기를 다른 때보다 배나 더했다. 이것은 명군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적진 앞에 세워둔 것을 보고 성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30일. 동이 트자 제독은 정예병 수천기를 뽑아서 성밖 여러 곳에 숨겨 두고, 오후에는 큰 길에서 북을 치고 빨피리를 불며 군사들을 뻑뻑이 늘어세움으로써 병력을 더욱 증강시킨 것처럼 과시하였다. 수군 130척이 또한 선창 가까이 이르니 적이 성벽 위에 올라서 소리쳐 말하기를 “자고로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은 듣지를 못했다. 원컨대 일면을 열어 우리들로 하여금 배를 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곧 거짓으로 놀려대는 말이었다. 그날 명의 여러 장수들이 다투어 제독에게 말하기를 “조선군으로 하여금 일면을 담당하여 성을 공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니, 제독이 도원수에게 물었다. 도원수가 대답하기를 “조선군은 훈련되지 못한 군사들이라 일면을 단독으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제독이 전과 같이 할 것을 명하였다.

초저녁에 제독부가 전군에 명령하여 각 부대에서 횃불 2거 썩을 들어 밝히고, 포를 쏘고 빨피리를 불며 일시에 다 함께 움직이게 하였다. 수군 역시 바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수륙의 군사들이 갑자기 산과 바다에 걸쳐 대진(大陣)을 이루었다. 제독부에서는 또 전군에 명령하여 함성을 지르게 하였다. 이날 밤 9시 경에 적이 화

24) 활쏘는 병사, 즉 궁사들의 명단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여기에서는 군사들의 신원을 기록한 병적부를 가리킨다. 사수록에는 병사의 연령·거주지·신장·흉터 여부·도망 여부·부친의 성명·병종(砲手·射手·殺手) 등이 기재되었다.

25) 소서행장이 유정과 강화회담을 하고자 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했던 장수는 히라도 번(平戶藩)의 번주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鎮信, 1549~1614)이었으며, (『日本戰史 朝鮮役』(참모본부, 1924)「補傳」제179 松浦鎮信の警戒) 그가 승려는 아니었다.

포와 조총 수백정을 난사하기를 지난 밤과 같이 하였다. 명군 측에서도 역시 화포와 조총 수백정을 쏘았다.

10월이 되어 초 하룻날. 새벽에 제독부가 영외(營外)의 청결한 곳에 제단을 쌓고 장졸들을 도열시켜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친 후 (제독이) 제단 아래에 있는 장졸들 앞에 나아가 단상에 서서 맹세를 끝내고, 또 본국의 접반사와 도원수 이하에게도 일러 약속을 정한 다음에 파하였다. 그날 제독부는 (전날의 지시를) 고쳐서 명령하기를 “소의장·방어사는 왕지한(王之翰)과 사무관(司懋官) 두 유격장에게 소속하여 서문쪽을 공격하고, 충청병사는 부 유격과 조 부총에게 소속하여 성동쪽을 공격하라.”고 하였다. 정오에 바다에서는 조명수군이 조수를 타고 합동으로 진군하여 무위(武威)를 떨치고 물러났다. 이때 제독부에서는 다음 날 새벽 4시경 성을 공격하기로 약속하고 각 진영의 공성기계들을 모두 완비시켰다. 초저녁에 붉은 유성별이 나타났는데, 마치 큰 탄환과 같은 것이 왜교성 상공에서 거의 적진으로 떨어질 듯하다가 호두 쪽에 날아가 떨어졌다.

다음 날 10월 2일. 새벽 4시경 제독부가 대장기를 세우고 빨피리를 불며 함성을 지르니 전군이 일시에 모두 왜교성을 포위하였다. 광병²⁶⁾이 가장 먼저 적진의 목책에 접근하였고, 동서병(東西兵)은 적진의 해자(壕子)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조명수군은 조수를 타고 나란히 진군하여 성동편 모퉁이를 공격하였다. 오전 10시 경에 서쪽 모퉁이의 바닷물이 알아진 것을 틈타 군사들이 적의 목책(木寨)에 접근하니, 적병 백여 명이 수문으로 나와 명군을 향해 격렬히 공격하였다. 명군의 사상자들이 많았는데, 소의장의 의병군이 그 뒤에 있다가 편전(片箭)을 집중적으로 발사하니 적이 퇴각하여 목책 안으로 물러갔다. 이와 같이 싸우기를 거듭하며 수군은 치열하게 싸웠으나 육군이 진격하지를 앓았기 때문에 조수가 밀려나면서 바로 퇴군하였다.

정오 무렵에 적이 왜교성의 웅성 밑을 파뚫어 토굴을 내고, 그 토굴 속으로 목관을 메고 나와 방패막이 목책으로 삼았다. 그 안에서 화포와 조총을 난사하며 광병에게 도전하였다. 그때 동쪽 모퉁이의 군사들이 잠시 퇴각하는 모양을 보이자 광병이 이를 보고서 또한 동요하였다. 적이 목책 밖으로 뛰쳐 나와 날뛰며 어지럽게 창검을 휘두르니 광병이 놀라 소요하였다. 적이 성위에서 깃발을 메고 뛰어 내려와 광병들을 무찔러 죽임에 전사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군세가 꺾이면서 무너져 달아났다. 이때 제독부의 기마병 수백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드니 적이 퇴각하여 성중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적이 땔나무에 불을 붙여 성밖으로 내던졌다. 또 적병 30여 명이 성밑 토굴 안에서 개미떼처럼 물러나와 목책 밖으로 뛰어나와서 충거·운제·목패 등의 공성기물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으니, 이 모두가 광병들이 버린 기물들이었다. 명군의 사기가 꺾여 다시 진격하지를 못한 채 때가 이미 저녁이 되어 포위를 풀었다.

이때 제독부가 조선군을 각 부대에 나누어 소속시켜 각종 공성기계들, 즉 충거·

26) 부총병 오광 휘하의 광동지역 군사들을 가리킨다.

동거·죽패·운제·신초·공석·토전(土甄) 등을 각 부대에 구비하도록 모질게 독촉함이 끝이 없었으므로 우리 군사들이 지치고 다쳐서 달아나는 자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 우리 군사들을 재촉하여 각종 기물들을 급히 운반하게 다그치니 군사들이 크게 원망하고 괴로워 했다. 그러나 제독은 싸울 뜻이 없었기에 군사를 독려하여 성을 공함(攻陷)하지 않았고, 다만 충거·운제·목패 등의 공성기물만을 세워둠으로써 많은 군사들이 그 안에 개미떼처럼 엮드려 있다가 간혹 잠을 자는 자들도 있었다. 광병이 한번 기세가 꺾이고 나니 왜노들이 성밖에 횡행하면서 이곳저곳을 베고 불을 질러도 명군은 앉아서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이날 전투에서 광병의 전사자가 2백여 명이었고, 강서병의 경우에는 3백여 명이었으니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다음 날 3일. 남풍이 종일 불었다. 각 부대의 공성기구들이 모두 다 적에게 불타 버리니 제독부가 야간에 공격할 것을 도모하였다. 파총 설대승이 소의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사천과 절강의 군사가 서로 맞지 않아 상호간 협력하지를 앓으니, 오늘의 일도 불리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진도독이 통할하는 군사는다 절강병인데, 유제독이 이끄는 군사는 모두가 사천·광동병들이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임피현의 관노 문석(文石)이 왜간첩(倭間諜) 한 명을 사로잡아 바치니 제독부가 은자 10냥을 상으로 주었으며, 도원수는 즉시 면천을 시켜주었다. 그 왜적이 진출한 공초(供招)에서 이르기를 “왜의 원군이 금명간 남해도로부터 이곳에 이를 것인데, 그들이 오면 성중의 왜적들이 나와서 사생결단하고 싸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정부²⁷⁾가 밤에 적진을 공격하고자 하여 결사대를 모으니 응모하는 자들이 매우 많았다. 경상도 사천 독전장 백사림의 급보가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동도독이 사천의 적을 공격하다가 불리하여 30리 밖으로 퇴군한 뒤 (진린의) 수군을 기다려 합세하려고 한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동도독이 지휘했던 사천전투에서 뇌(雷) 유격장²⁸⁾이 전사하고 천총(千總) 이하의 전사자 역시 많았을 뿐 아니라 보병의 경우에는 그 희생자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였음을 말한 것이다.

제독부가 여러 장수 및 본국의 도원수 이하 수백기(數百騎)를 인솔하여 호두를 순시하고 적진을 살피며 군사를 진격시킬 형세를 취하였다. 이날 새벽 소의장 임환이 공성의 난이(難易)에 대해 적어서 접반사를 통해 제독부에 올렸다. 제독부는 이를 가납하면서도 조선인의 계책을 의심하여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밤 8시 경에 진도독이 통제사를 이끌고 합동으로 동쪽 모퉁이를 공격하니 제독이 육군을 정렬시켜 이를 도왔다. 포화가 번개처럼 날으는 소리들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격전을 벌이니 적이 크게 움츠러들었다. 그때 갑자기 선중(船中)에 있던 한 병사가 “화약이 떨어졌다.”라고 외쳤다. 적이

27) 의정부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의정(영의정·좌의정·우의정 가운데 1인을 지칭), 즉 우의정 이덕형을 이른다. 유정이 한성에서 남하할 때 조선측의 陪臣으로서 함께 동행하여 왜교성 전투 기간중 내내 순천진중에 있었다. 왜교성 전투 기간중인 10월 8일자로 좌의정에 승진하였다.

28) 사천성 전투에 참전한 명군의 유격장 가운데 雷氏 성을 가진 장수는 없었다. 아마 이 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한 유격장 盧得功을 잘못 알고 있었던 듯하다.

그 소리를 듣고서 일제히 췌불을 들어 올리자 명의 병사들이 정신없이 항구에 뛰어 내리며 배를 전진시켜 목책 사이로 밀고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조수가 물러가므로 적을 제압할 수가 없었다. 적병들이 명군을 무차별하게 찍어대면서 피아간에 육박전이 벌어져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명군은 그들 모든 장비가 적에게 탈취되고 말 것을 알고서 즉시 전선 13척을 불살라 버리고 바다에 뛰어내려 물으로 올라갔다. 통제사는 경선(輕船)으로 명군을 구출하여 200여 명을 살려냈지만 죽은 자들이 반이 넘었고, 왜적들의 전사자 또한 많았다. 본국의 수군 전선 세 척이 또한 얇은 바닷물에 걸려 었혀버리니 적이 난입하여 우리 수군을 공격하였다. 보성군수가 탄 배가 적에게 당하고 말았는데 군수 전백옥(全伯玉)²⁹⁾은 띠거적을 타고 나와 생환하였다. 거제 영등포와 남해 평산포의 두 전선은 목패로 굳게 방어하면서 사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니, 적이 쏘고 찌르고 무차별 공격하였으나 능히 다 도륙하지는 못했다. 안골포 만호 우수(禹守)³⁰⁾가 가슴에 총알을 맞아 전사하니 통제사가 몹시 슬퍼하였다. 그때 적이 성동쪽 모퉁이에서 연합수군에 대항하여 전력을 다해 싸우는 바람에 서쪽 수문의 한 모퉁이가 텅 비게 되었다. 그것을 본 우리나라 피로인 여인이 성 위에 올라서 소리쳐 말하기를 “명군은 지금 빨리 성을 치시오! 제독이 군사를 독촉하여 성루에 오른다면 반드시 적을 무너뜨릴 것이요.” 라고 했다. 그러나 사천과 절강의 군사들이 서로 시기하여 싸울 기회를 놓쳐 버렸으니 모두가 분히 여겨 옥하였다. 또 진도독은 호전적인 장수였는데 이날 육군이 이미 서쪽 모퉁이를 공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급히 수군을 진격시켜 몰아 붙였으나 육군이 돕지 않았기에 패하게 된 것이 극히 참담하였다. 이에 진도독이 분노하여 이르기 “나는 이제부터 단지 술이나 마실 뿐, 다시는 싸우려 나아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다음 날 4일. 남풍이 불었다. 오전 10시 경에 조선수군이 동쪽 모퉁이로 줄지어 진격하여 전투에서 패한 명의 전선을 엄호해 나왔다. 왜적이 성밖을 횡행하며 성벽을 수축하고 목책을 보수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려함이 없었다. 또 우리나라 피로인들을 성 위에 오르게 하여 크게 소리쳐 명군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게 하였다. 도원수는 복병을 뽑아서 광양 두치진 등의 통로를 망보게 하였고, 제독부 또한 통사를 파견하여 뒤를 따르게 하였는데 이것은 대개 사천의 명군이 불리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5일,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소의군(昭義軍)의 별장 우천상 등이 밤에 서항(西港)³¹⁾으로 들어가 적의 목채들을 뽑아서 원수부에 바치니 원수부에서는 이것을 제독부에 바쳤다. 우의정 이덕형이 제독부에 나아가 전투를 청하였으나 제독은 따르지 않았다. 우의정이 나와서 여러 장수들을 인솔하고 다시 제독부에 이르러 싸우기를 청하였으나 제독은 허락하지를 않고서 말하기를 “내가 철병하여 물러난다면

29) 원문에는 김백옥이라 하였으나 이는 전백옥(1558~1605)의 잘못이다. 정유재란중 1598년 潘混의 후임 보성군수로 있었다. 1598년 6월 8일 의병장 崔大晟이 보성 관내의 안치들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 그는 인근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선조실록』 권102, 31년 7월 6일).

30) 원문에 安古羅 萬戶 禹守中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

31) 왜교성의 정면으로부터 왼편 아랫쪽에 위치했던 항구. 『征倭紀功圖券』에 나타난 왜교성도를 보면 그곳에 일본군의 전선들이 준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배를 당하는 데 그칠 뿐이오. 그러나 만약 싸워서 불리하게 되면 황제의 위엄을 손상시킬 것이니 죽고서도, 죽음의 벌이 더 남아 있을 것이므로 감히 싸우지 않을 뿐이라.”고 하였다. 도원수가 눈물을 흘리며 청하여 이르기를 “신은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서도 죽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원컨대 결사대 5백을 인솔하여 선봉에서 말을 몰아 저 성을 공격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제독이 말하기를 “귀국의 군사들이 잘도 무너지는 것을 어찌 할 것이오?” 라고 하였다. 도원수가 다시 말하기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병사와 방어사의 머리를 베어 제독부 군전(軍前)에서 사죄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제독은 머리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때 부총병 이방춘이 말하기를 “귀국의 군사들이 이처럼 싸우기를 즐긴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천조(天朝)의 군사를 청하였소?” 라고 하니, 원수는 대답하지를 못하고 물러났다. 대개 이 부총이 통솔한 군대는 모두 기마병이라 야전에는 유리하지만 공성전에는 불리하였기 때문에 방어만 하였던 것이다. 명군의 각 진영에 부상당한 병사들을 떠메고 나오는 일이 계속되고, 짐꾼들이 또한 야심한 밤에 물건들을 옮겨 날랐으니, 제독부가 퇴군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날 북풍이 크게 불어 모래흙이 날렸는데 만약 바람을 따라 불을 놓았다면 성을 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 날 6일. 아침에 적이 뿔나무를 쌓아 연기를 피우니 남해도의 적이 여기에 호응하였는데 이날 날씨가 맑았다. (돌이켜 보면) 처음에 명군이 거창한 형세로 골짜기의 구름처럼 대진(大陣)을 펼침에 모두가 기뻐 뛰며 왜적 소탕할 날만을 기약하여 눈을 씻고 바라보았다. 그런데 제독부가 한 차례의 교전에서 기세가 꺾이더니 졸지에 군사를 퇴각시킬 계책을 정하니 군사들이 모두 원망하고 분개하여 서로를 쳐다보며 실색하였다. 대개 유정은 금은재색(金銀財色)으로 황실의 근친들과 결속하여 출세를 한 자인지라 경박하고 바랄 것이 없어 장졸들이 그를 업신여겼다. 또한 사천과 절강의 병사들은 서로 공세우는 것을 시기하였므로 도원수가 비록 결전할 것을 간청한들 군사들이 둘로 갈라져 있었으므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소의장이 전에 우의정 앞에서 이르기를 “유장군은 용렬한 인물이라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었다. 그때 우의정 이하 모두가 서로 돌아보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그 말이 과연 합당함을 알게 되니 사람들이 다 소의장의 감식력(鑑識力)에 탄복하였다. 이날 밤 제독은 거짓으로, 제독 자신이 장졸들을 인솔하여 먼저 철수하는 척하며 또 도원수에게 철병을 명하였다. 도원수가 그 말을 믿고서 바로 철수하였는데 그 사이에 선후의 간격이 있었다. 제독이 원수를 불렀으나 그때는 이미 퇴각한 이후였다. (도원수가 먼저 퇴각한 것으로 꾸몄으니) 제독의 이 계략에 사람들이 모두 속았던 것이다.

다음 날 7일. 명군의 장수가 기마병으로 매복을 시켰다가 오전 10시께 철수하여 물러나니 적은 그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여기고 종일 성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명의 대군이 처음 이곳에 이르렀을 당시에 각 고을의 군량을 독촉, 운반하여 쌓아둔 것이 산더미 같았다. 군사들에게 풀어 공급한 것 외에도 군량은 엄청 많아 보였다. 비록 군사들에게 마음대로 가져가게 했더라도 남아 있는 것이 또한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군량관의 계책이 어찌 태워버리는 것 밖에 없었을 것인가! 유제독이 부유촌으로 퇴진하고 우의정과 방어사는 해농창을 지나 후퇴하였으며, 도원수와 접반사는 광양의 대로를 거쳐서 물러갔고, 그 나머지는 순천의 대로를 경유하여 퇴각하였다. 소의장이 순천읍성 밖에 이르러 생각하기를 “아마 유제독이 재진군할 기계(奇計)일 것이다.” 라고 하여, 다시 정기(精騎)를 거느리고 왜교로 돌아가 군량 쌓아둔 곳에 이르러 보니 군량이 이미 불타버려 되돌아 물러났다.

그러나 (되돌아 보면) 동도독은 이미 사천의 적을 묶어두었고 유제독 또한 대군으로 왜교를 압박하고 있었으며, 명의 수군이 해로를 가로막아 끊었으므로 소서행장은 앞뒤로 적과 마주쳐 이미 진퇴유곡의 형세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행장의 통사(通使)가 와서 명장(俞정)에게 말하기를 “대군을 퇴진시켜 주고 또 수군이 조금만 물러가게 한다면 마땅히 서로 강화하고 철병하여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명장은 도사(都司) 오종도를 파견하여 적진에 들어가 행장에게 화약(和約)을 허락하고 이르기를 “모일(某日)에 바다를 건너라.”고 하였다. 이에 수군은 나로도 앞바다로 군진을 옮겼고, 육군은 부유창 부근에서 군사를 함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이미 지났는데도 행장이 곧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므로 수군이 군진을 다시 왜교 쪽으로 전진시키고 또 행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약속일이 이미 지났는데 아직도 철병하여 바다를 건널 뜻이 없으니 전에 한 말은 거짓이었구나.” 라고 하였다. 행장이 말하기를 “수군이 뒤쫓아 잡을까 두려웠다. 만약 명의 장수 두 사람을 볼모로 둔다면 철병하여 대마도에 이르러 돌려 보내겠다.”고 하니, 명장이 그 약속대로 해주었다.

얼마 후 수군의 좌복병(左伏兵)이 보고하기를 “남해 앞바다에 적선이 무수히 출현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진도독이 즉시 통제사에게 전령하여 좌우 복병을 이끌어 선봉으로 진격케 하니, 그때 날은 이미 어두워 저물었다. 우리나라의 수군이 노를 재촉하여 급히 나아가 밤 자정 무렵에 노랑 앞바다에서 적선과 마주쳐 전투가 벌어졌다. 통제사가 명령하기를 “왜적의 수급(首級)은 베지 말라” 하고, 군령을 행하여 좌우 수군을 지휘하며 독전하였다. 포화가 우레처럼 날아들고 화살과 돌이 마구 쏟아져서 불에 타거나 파괴된 왜선이 무려 1천 척이나 되었다.

정오에 못미쳐 통제사가 탄환에 맞아 쓰러지니 전사한 것을 비밀에 붙여 발설하지 않았다. 해가 기울 때까지 격전을 벌여 부서진 선박과 죽은 왜병들이 바다를 덮어 떠돌았다. 이때 명나라 수군은 후위에서 적의 목이나 벨 뿐이었다. 해가 높이 떠올라 중천에 이르렀을 때 수군의 화살이 다하고 군사들이 지쳐서 더는 싸울 수가 없었다. (다음 날) 행장은 왜교에서 뜻대로 배를 띄워서 바다를 가득 메우고 탈출하였다. 수군의 지휘기(指揮旗)가 북을 울리며 추격하였으나 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게 늘어져 대마도를 향해 달아났다. 유제독은 그 후 대군을 이끌고 왜교성에 뒤쫓아 왔으나 얻은 것은 텅 빈 성뿐이었다. 이때 왕안찰(王按察)³²⁾이 내려와서 군용

32) 명군의 감찰업무를 수행했던 王士琦를 가리킨다. 절강성 台州府 사람이었던 그는 정유재란시 총독 형개의 천거에 의해 ‘西路禦倭監軍’ 이 되어 劉綎軍의 감찰업무를 띠고 조선에 파견, 남원에 머물고 있다가 왜교성 전투가 끝난 뒤 순천에 내려와서 현지상황을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

(軍容)을 살펴볼 때에 제독이 장졸들에게 충거·운제 등을 적진 앞에 늘어세우게 하여 보이며, 함성(陷城)의 과정에 대해 말하기를, “이달(11월) 13일에 수군이 치른 해전은 대첩이라 할 만합니다. 아마 행장이 남해의 적³³⁾에게 전투를 떠넘기고 자신은 탈출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적영은 요새의 설비가 매우 험교(險巧)하여 만일 우리 육군이 공함(攻陷)하려 한다면 희생되는 군사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말하기를 “제독의 이 계략은 그럴 듯했다.”고 하였다.

당시 나는 소의장의 군중에 있으면서 참모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기록하여 훗날 사람들이 살펴보는 데에 대비코자 한다.

[原文]

曳橋進兵日錄

丁酉秋 賊大掠湖南 平行長退據 順天府之南曳橋 所謂曳橋者 山形斗起 狀似虎伏 三面際海 一面連陸 自順天府 抵左水營之大路傍也 東連光陽 斥鹵爲界 南接南海島開洋 而獐島在其前二里許 西有狐頭 相距亦一里有餘 而中則海潮出入處也 石岫在其北十里外 而海農倉坪際焉 平行長設除其上 累土築城 容數千軍 作五層望樓 塗以白土 蓋以瓦甍 狀如飛翼 傍列土庫 藏軍器軍糧 外築堅城一重 而於其北連陸處 廣鑿壕子 東西接海 引船出入 其外又築一帶城 東西際海 中作門樓 蓋以土燒之四面 城外週遭設木柵二重 而其北一面 則加設一重 城上築女牆 出炮穴若蜂窩 自內城至外城 土屋櫛比 數千餘壘 東有船滄 乃賊船停泊處也 平行長 及諸倭酋 沙奇炎島老 憂伊馬島老 阿鸞島老 古勿安島老 古敦島老 彼鸞島老等 居其中 戊戌九月 提督劉綎率大軍下 屯南原谷城之間 時邢軍門 分四都督進兵 皆以是月二十日辰時爲約 都督馬貴主蔚山賊 都督董主泗川賊 提督劉綎主曳橋 都督陳璘掌水軍挾攻 於是提督促發我國兵馬 印給紅馬牌曰 隨征麗兵 厥月十四日 部分天朝諸將官 泊本國兵卒 令三路進兵 以頭營游擊王之翰 二營游擊司懋官 參將李寧 及忠清兵使李時彥 由光陽左路以進 廣營副總兵吳廣 及防禦使元慎 昭義將林權 由樂安右路 截海農倉以進 提督率副總李芳春 游擊牛伯英及都元帥權慄 全羅兵使李光岳等 由富有倉大路直進 期以十五日行軍 二十日辰時合攻 十九日 提督自富有倉起身 夕到月登村 宿副摠兵曹時聘陣中 夜四更發軍 翊曉直到順天府 城外住筓 距曳橋十五里許 差人約行

33) 남해도의 宗義智의 부대와 泗川에 웅거하고 있던 島津義弘의 진영을 말한다.

長來會講好 密令旗旆官王世賢稱提督 且使本國白翰南卞弘達稱陪臣 欲爲行計 時副摠吳廣 發自樂安開寧村 至阿里帖黎明 麾諸士卒 匿諸山谷 平明副摠 及防禦使昭義將等 上山瞭賊 則賊上石帖東峯 放鳥銃數柄 燒柴烟氣 日出 或張旗 或騎或步 二十里間 魚貫絡繹 又散上峯頭 列豎紅白旗 盛陳軍威 副摠望見曰 此必行長將向順天 約會劉提督也 彼若見我兵 大計必壞 藏兵勿動 須待提督交兵 促發並進可也 昭義等謀曰 此距賊路二十里許 且海農之野 泥濘坎陷 未易乘機 必設伏近路 以要之賊 可破也 副摠遲疑不從 昭義將等 各抄精卒一隊 將設伏 俄聞賊放大砲以報變 乃光陽分路兵先犯也 時行長盛備酒食 出至海農倉坪 望見天兵 回馬走還 提督卽催軍追趕 副摠吳廣亦望見 直截海農倉坪以渡 三路軍馬 一時合趨 賊上峯頂 搖旗揮劍 以示我軍 我軍乘銳 追迫石帖 賊卷旗幟 退入其壘 光陽分路兵先薄賊陣外 廣軍繼至 王游戎(擊)斬賊十五級 督府旗牌官曹栢斬四級 自餘諸官將所獲 并九十餘級 三路天兵 進薄賊壘 相持進退 賊衆不敢出 唯於門穴 放砲而已 午時 陳都督率統制使 乘潮列進 天兵望見 舟師盛至 莫不踴躍 士氣益倍 陳都督襲獐島 取賊軍糧三百餘石并牛馬 刷還囚擄人三百餘口 分兵又搜剔 三日浦賊巢 列戰艦于獐島前洋 皆揭白旗 提督列大軍 賊壘之外一里許 盛張旗鼓 廣設棊木 又收取木竹 大作攻城器機 是夜 賊燒柴炬 自城上投于城外 火光如晝 達曙放炮 越翌日二十一 提督列兵城外 舟師乘早潮 進賊壘東隅 或進或退 賊乘船促櫓 有若誘引之狀 舟師不動 賊不敢前逼 潮落舟師乃退 酉時 賊由西門出 或一二人 或三四人 作線出入 揮刀放丸 天兵一人乘白馬 突進奪一旗 賊徒走入 衆丸叢發 中其馬脚 馬不仆 提督賞銀牌 是日北風暫起 天色清明 旗脚皆指賊營 似天有助順之意 是夜 賊燒炬放丸 如前夜 翌日 二十二巳時 陳都督督舟師 乘潮又進 賊悉衆以出 聚立船滄 天兵張帆促櫓 循環迭戰 彼此放丸 皆如雨 天兵船一艘 最着前進迫 賊百餘急涉淺港搏戰 天兵以鐵鉤 鉤斬十餘級 賊衆死傷甚多 而天兵亦如焉 游擊季金中丸傷 時我國舟師潮淺 不得隨戰 午後 提督鳴金收兵 我國被擄女二人 逃自賊陣中 至元帥前告曰 賊衆不甚多 畏憚天兵 不能喫飯云 是夜 賊不舉火 寂然無聲 但時時放炮 翌日二十三 昭義陣儒士 鄭民俊等 奉酒果魚品 進提督府 提督方踞床 令家丁洗足 譯者李億禮呈報單 提督卽輟洗起立 引入禮謝 巳時提督率十餘騎 登賊營西丘瞭賊 提督發聲大嘯 從者皆作喊 各營列柵築壘 以示持久之意 令本國軍人督役 大造雲梯衝車 及各樣攻城器具 多設伏兵 嚴勅巡邏 厥夕賊三十餘人出城外 橫行放丸 抄射手對岸發矢 泰仁縣監文希聖 射中一倭 提督賞銀牌二面 舟師以下弦水淺 故未能進戰 是夜賊達曙明 大亂放炮銃 翌日二十四

賊出城外 扣髻踴躍 天兵一人 及本國砲卒高南金 各中一倭仆地 賊曳尸入壘 不敢再出 夕後賊乘船 終夜出沒 畏忌舟師 不敢出海 還入其陣 贛營游擊 傅良喬軍 二千又至 是夜天兵設伏 亂放火箭入賊中 賊呼聲作喊 終夜戒嚴 翌日二十五 賊橫行陣外 天兵及我軍 或射或炮 皆不得中 賊公然樵採 略無畏意 是夜賊明火 戒嚴如前夜 翌日二十六 白狐自賊陣中出來 至提督陣前逸去 衆卒追之不得 頭峙伏兵撤來 蓋設伏頭峙 疑泗川之賊 而董都督已圍之 故撤還乃浙西兵也 賊百餘人出壘外 橫行放丸 欲搏戰伏兵 天兵一人 佯中丸僵臥 賊已爲死 拔劍直來欲斫 天兵突起 以三枝戟貫胸 奪賊劍斬之 提督賞銀一百五十兩 錦衣二領 良馬一匹 卽除把摠 初昏提督督諸營 各舉二柄 齊聲作喊 形勢極壯 是夜賊情如前 是時各營攻城器機半已垂畢 提督約以二十八日 爲水陸夾攻之計 翌日二十七 小雨卽晴 早朝都元帥接伴使 制兩白旗 於兩面大書曰 被擄附賊人 出來免死 建之賊陣之外 倭卽拔兩旗 曳入其陣 卽午 倭以一紙書 揭竿首植於壘外 天兵取呈督府前 開見則乃行長陣下 小將右近 寄督府標下 降倭葉春書也 書云 我曾在清正陣下 因事投入行長陣中 今聞汝亦自清正陣中 來在督府標下云云 此後如有所爲之事 須通於我云云 倭又以一紙書 懸竿上植於陣外 天兵又取呈督府前開見 則亦是清正陣中倭 來在行長陣下者 通書于葉春曰 別來久不得信 今始聞汝在彼甚慰 汝若欲寄鄉信 卽我當傳致云 繼有一倭 持右近書及一紅旗出來 傳與葉春云 明日你可指此旗 只帶三四人 我亦只帶三四人相見議事云云 提督使葉春報書 大畧以爲 清正已與東路天將約和 俟劉提督攻破行長山城 然後卽當撤兵渡海云 我所聞如是 故告汝 當日提督 率諸將官數百騎 亦狐頭瞭賊形 都元帥督收 各陣分定 工石及薪草 積如丘山 蓋爲攻城時所用也 我軍頗苦之 提督欲以明日爲攻賊城 謂器械未完 退定來朔初二日 是夜初更許 賊中自相驚擾 良久乃止 翌日二十八 吳副摠廣 貫其軍六人耳 巡示諸營 蓋副摠抄送夜伏兵 親自巡檢 有臥睡者 故有此罰 都元帥督收諸陣射手錄 以其督府有催也 倭築城上炮臺 提督親祭軍壇 習放火炮 是夜賊形如初 翌日二十九 提督分付諸營 泊本國軍兵曰 合攻時 以忠清兵屬王游擊等 入東水門 全羅兵屬吳副摠攻中堅 防禦使昭義將 屬傅游擊等 主西水門 當日 提督率家丁徒步出 閱攻城器械 時行長欲與連和 僧倭將阿鸞島老曰 不如戰死 親自張旗 益設戰備云云 是夜賊亂放炮銃數百柄 戒嚴倍他 蓋天兵作芻人 立賊壘外 賊疑攻城 故如是 翌日三十 當曉提督選精兵數千騎 匿諸外處 午後由大路 擊鼓吹角 魚貫以至 以示添兵之狀 天朝舟師一百三十艘亦至 賊上城頭呼言曰 自古未聞盡殺人者 願開一面 令我等得泊云 然其辭乃慢侮之言也 當日天朝諸將官 爭督府曰 可令麗軍 當

一面攻城 督府下詢元帥 元帥對曰 麗軍不教之卒 不可獨當一面 督府依前分付 初昏督府令諸營 各舉兩炬火 放炮吹角 一時齊作 舟師亦如之 山海卒爲大陣 督府又令諸軍作喊 是夜二更初 賊亂放炮銃數百柄 如去夜狀 天兵亦放炮銃數百柄 越十月初一日 是曉督府築祭壇 營外潔地 列將士致祭 祭畢進將士于齋壇之下 立壇上約誓訖 又進本國接伴使都元帥以下 申定約束乃罷 當日督府改分付云 以昭義將防禦使屬王司二游 戎攻西門 忠清兵屬傳游擊曹副摠攻東 午潮舟師合進耀武而退 是時 督府以初二日寅時約攻城 各陣器械 無不畢造 初昏有星赤如大丸 殞自賊營上幾墜賊陣 以奔狐頭落焉 翌日初二 寅時 督府建大將旗 吹角作喊 四軍一時合圍 廣兵最先薄賊柵 而東西兵距賊壕稍遠 舟師乘潮列進 合攻東隅 巳時西隅兵淺港 將薄賊寨 賊百餘出西水門 亂搏天兵 天兵多死傷 昭義軍在後 叢發片箭 賊退入 如是者再 舟師酣戰 陸兵不進 故乘汐乃退 午賊穿瓮城根出穴 自穴中擔出木板 列立內柵 亂放炮銃 以挑廣兵 時東隅兵 暫有退卻之狀 廣兵見之亦動 賊突出木柵外 踴劍亂斫 廣兵驚擾 賊自城上 負旗跳下 廝殺廣兵 死者六十餘 兵勢披靡 幾至潰奔 督府馬兵數百 作喊馳赴 賊退入 未幾賊投束薪於城外 且三十餘人 自穴中蟻出 把薪跳木柵之外 急燒衝車雲梯木牌等物 皆廣兵所棄之物也 天兵氣挫 不復督進 既夕乃解圍 是時督府 令本國軍兵分屬諸營 各樣攻城器械 衝車銅車竹牌雲梯 薪草工席土靛等具 苛督無已 我軍疲傷 至有逃躲者 至是又令我軍 急督移運 人甚怨苦 提督無戰意 不即督兵攻陷 但列立衝車雲梯木牌等物 大兵蟻伏其內 或有睡者 廣兵一挫 倭奴橫行城外 或斫或焚 天兵坐視而已 是役也 廣兵死者二百餘 賴兵三百餘 餘不記 翌日初三 南風終日吹 各營攻城器具 盡爲賊燒取 督府謀夜攻 把摠薛大勝 書示昭義將曰 川浙兵矛盾 不相協力 今日之事 恐不利也 盖陳都督所統 皆浙兵 而督府所率 皆川廣兵也 故云 臨陂縣官奴文石 禽謀倭一人 督府賞銀子十兩 元帥即令免賤 厥倭供內云 援倭今明間 自南海島至 至則城中倭出 戰決死生云 政府欲夜攻 募敢死士 應者頗衆 泗川督戰將白士林 馳報至曰 董都督攻泗川賊 不利退陣 三十里之外 待舟師合勢云云 盖董之是役也 雷游擊戰死 千總以下 死者亦多 步卒不記其數 督府率諸將 及本國都元帥以下數百騎 巡狐頭諦賊中 進兵形勢 是曉昭義將草攻城難易 呈接伴使進督府 督府嘉之嫌其麗人之策不用 夜初更 陳都督率統制使合攻東隅 提督列兵助之 炮火雷飛 聲若天崩 至夜分進退搏戰 賊大縮 俄有船中人呼 曰火藥盡 賊聞之 一時齊舉烘火 天兵亂下港口 而進船入木柵間 潮已退不能制 賊亂斫之 天兵與賊相搏 死傷甚衆 天兵知爲賊所奪 即燒其船十三艘 下水登陸 統制使以輕船載濟 天兵活二百餘 死者過半 而倭奴

死者亦夥 本國舟師三艘 亦掛着淺港 賊亂入搏之 寶城郡守所乘船爲賊所屠 而郡守金伯玉 乘茅編得生 永登平山二浦船 堅閉木牌 令士卒不動 或射或刺 賊不能屠 安古羅萬戶禹守中 中丸死 統制公甚悼之 時賊全力東隅之舟師 西水門一隅空虛 我國被擄女人 乘城呼言曰 天兵速陷之 督府促兵乘(?) 則必有蕩覆之勢 而川浙相猜 大失戰期 人人憤罵之 且陳都督好戰者 謂陸兵已攻西隅 急促兵進薄 而陸兵不助 故舟師之敗 如是極慘 陳都督憤之曰 吾自今而後 但飲酒而已 不復進戰云云 翌日初四 南風 巳時 本國舟師 列進東隅 護出戰敗舟師 倭橫行城外 築壙補寨 少無畏忌 令我國被擄人 乘城呼叱極辱天兵 都元帥抄送伏兵 哨頭峙等路 督府亦遣通使隨之 盖泗川 不利故也 翌日初五 陰而風 昭義別將禹天祥等 夜入西港 拔賊木寨 進元帥府 元帥府進督府 政府詣督府請戰 督府不從 政府出率諸將官 更詣督府 請戰 督府不肯曰 吾撤兵而退 則至於流竄而止耳 若戰而不利 則虧損皇威 死有餘誅 故不敢耳 都元帥涕泣而請曰 臣受國家厚恩 不死至此 願率敢死 士五百 爲先驅攻城 督府曰 貴國兵善潰奈何 元帥曰 若如是 斬兵防禦使 頭 以謝軍前 督府俛首不答 副摠李芳春曰 若貴國兵 如是樂戰 何故若請 天朝兵耶 元帥無以爲答乃退 盖李副摠所統皆馬兵 利於野戰 而不利於攻城 故防之 各營天兵 中丸傷者 陸續擔出 其僕馱亦冒夜移運 督府有退師之意 故如是 是日 北風大起揚沙土 若隨風緩火 則城可攻也 翌日初六朝 賊積 柴烟氣 南海島應之 是日晴天 兵張皇形勢 大陣雲谷 群心懽躍 掃蕩之期 拭目佇觀 而督府一交少挫 輒有退師之計 衆情怨憤 相顧失色 盖劉綎以金 銀財色 締結肺附 以爲援身者 輕躁無望 將士慢侮焉 且川浙兵 互忌成功 元帥雖懇請決戰 將士離貳 不可爲矣 昭義將前在政府曰 劉將軍庸材也 不 可濟大事 政府以下 相顧不答 至是所言果合 人人服其識鑒 是夜 提督假 定 提督率將士先出 且令都元帥撤兵 元帥信之 而撤有間 提督呼元帥 則 已退矣 然提督此計 人皆詐之 翌日初七 天將以馬兵設伏 巳時撤退 賊以 爲誘引 終日不出城外 時天兵大至 督運各邑軍餉 積如丘山 放外見糧甚多 雖使軍兵 任意取去 餘存亦多 放糧官計 未如何燒之 劉提督退陣富有村 右議政防禦使 渡海農倉以退 都元帥接伴使 由光陽路以退 其餘由順天大路 以退 昭義將至順天城外 意謂劉提督再進兵之奇計 更率精騎 還向曳橋 至 糧所見 糧已火還退 然董都督既綴泗川之賊 劉提督又以大兵壓曳橋 而天朝 舟師 遮截海路 行長腹背應敵 已成維谷之勢 使謂天將曰 使大軍退陣 且 令舟師少卻 則當連和撤渡 天將遣都司吳宗道 入賊陣 許約行長曰 某日渡 海云 於是舟師移陣 羅老島前洋 陸兵則合陣 富有等處以待 約日已過 行 長不即渡海 舟師進陣 且責行長曰 約日已過 殊無撤渡之意 前言詐也 行

長曰 恐舟師之攝後也 若以天將二人爲質 則撤至對馬島送還 天將如約 有頃舟師左伏兵報曰 南海前洋 賊船無數出現 陳都督卽傳令統制使 率左右伏兵 先鋒進擊 時日將曛暮 我國舟師 促櫓踔進 夜三更逢賊船 于露梁前洋搏戰 統制使令曰 不斬倭首 輒行軍令 麾左右舟師督戰 炮火雷飛 矢石交下 燒破倭船 無慮千艘 未午統制使中丸 死秘不發 至日昃大戰 破船敗倭蔽海而浮 天朝舟師 殿後斬頭而已 日三竿舟師矢竭 兵疲幾不能振 行長自曳橋放船 蔽海而出 舟師麾旗 鳴鼓追進 賊不顧逶邐 直向對馬島 須臾盡渡 劉提督自後率大軍追躡 所得者空城耳 時王按察來觀軍容 提督令將卒列衝車雲梯 于賊壘之外以示 陷城之次云 是月十三日也 舟師之戰 可謂大捷也 蓋行長嫁戰於南海之賊 而自脫之計也 大槩賊營設機甚險巧 若攻陷則傷軍必多 而其勝未可必也 或云 提督是計良矣云 時不佞在昭義將軍中 職參謀將故錄之詳焉 以備他日之覽